



◁정진우 실장(사진 왼쪽)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노동자 니할(가운데)과 랄(오른쪽)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니할과 랄은 모두 불자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에서...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똑같은 우리친구...더 큰 관심 필요”

“저는 니할입니다. 저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까? 그것은 제 운동화가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한 사무실. 3~4평 되는 공간에서 가무잡잡한 피부에 옛때 보이는 두 동남아인이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더듬더듬 한 마디씩 뱉어낸다.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노동자 랄(24)과 니할(30)이다.

랄과 니할은 3년 6개월 전 각자 우리돈 150만원을 내고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현재 김포에서 의자와 공 만드는 일을 하는 그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한 달에 85만원을 받는다. 그 중 50만원은 저금을 하고 35만 원으로 생활한다. 점심은 회사에서 주지만 아침 저녁은 직접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늘 빠듯하다.

랄과 니할은 한달에 1~2번 쉰다. 쉬는 날은 늦은 아침을 먹고 김포에 있는 외국 노동자 인권문화센터(회장 영도)에 온다. 한글수업을 받기 위해서다. 낯선 땅 한국에서 살려면 우선 한국말을 잘 해야 할 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랄과 니할이 한글공부에 열중할 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첫 방문인 듯 겸연쩍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모습을 자주 봐온 정진우 실장(34)은 조금은 과장된 몸짓으로 반갑게 맞이한다.

방글라데시인 나주무르는 서툰 한국말로 이곳에 온 까닭을 털어놓는다. 형수가 아파 대신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려 온 것이다. 정 실장은 케비넷에서 서류양식을 꺼내 이겨져서 기입한다. 선재의료원 등이 가입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의료보험카드를 받아온 나주무르. 환한 미소로 답례하고 문을 나선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2002년 1월 문을 열었

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련, 이하 경불련이 서울 자비의 집에서 네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계기가 됐다. 네팔 외국인노동자들이 네팔불자모임(Nepal Buddhist Family)을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불련은 좀 더 열악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해 있지만 상담소가 없는 김포에 등지를 틀었다.

인권문화센터는 전체 10명 남짓한 공간에 사무실과 작은 방 하나,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은 전액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김포에 10여명 사무실 외국인 근로자 도와 한글교실·노동상담·컴퓨터교실 등 운영 내달 중앙승가대 학인과 사찰순례 계획

인권문화센터에 하고 있는 일은 한글교실과 노동·복지문제 상담, 컴퓨터 교실 등이다. 이 중 노동문제 상담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체불임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직접 고용주를 만나 확인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김광호 상임운영위원(50, 도이무역 대표)과 정진우 실장, 한글교실 자원봉사자 송덕원(48, 학원강사) 씨 등 3명. 정 실장은 경불련에서 한달 70만원 연 보너스 15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그는 올 2월

외국인노동자협회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정 실장과 랄과 니할이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한명의 외국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번엔 피부색깔이 희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 사마토. 한국에 온지 3년 정도 됐다는 사마토는 올 1월 일한 것 중 10일치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정 실장은 당시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본다. 고용주는 일한 것은 다 썼다며 되레 화를 낸다. 정 실장은 침착하게 고용주를 달래고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다. 당시 같이 일했던 중국 사람과 같이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약속하고 사마토를 돌려보낸다.

공식 집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40만, 고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낯선 땅 한국에서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혹 불법체류자란 딱지가 붙으면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는, 우리가 7~80년대 외국에서 겪었던 모습들.

“그들은 피부 색깔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요 때문에 그들이 왔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한 축입니다. 특히 동남아인 등 불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불교계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들 언어로 법문할 수 없다면 공신력있는 스님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교육 시킨 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포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상임운영위원은 올 4월 경 외국인 불자들을 위해 중앙승가대 학인들과 한국사찰 순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997-2301-2, 후원계좌 조흥은행 877-06-008223(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김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 온 상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인해 전 에 있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공해와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 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중장기의 염증 등 전 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지워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 하여 상정산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므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상정스님은 우리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식염, 구지봉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처리를 거친 그 결실을 불치병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